

## 로또복권 200회

사연도 많고 부작용도 많아

‘인생역전’ 로또복권이 30일로 200회를 맞는다. 지난 2002년 12월 판매를 시작한 로또는 많은 사연과 진기록을 쏟아냈다.

◇ 최고당첨금 407억=198회까지 최고 1등 당첨금은 2003년 4월 19회차의 407억2천300만원. 1등 당첨자는 모두 1천24명으로 당첨금을 모두 합치면 2조7천억원이었다. 1등 당첨자의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은 272명이었고 경기도(215명)·경상도(83명)·부산(76명) 순이다.

가장 많이 나온 당첨 숫자는 ‘36’과 ‘40’으로 각각 34차례 나왔고 ‘42’가 33차례, ‘18’ ‘34’ ‘37’이 32차례, ‘2’가 31차례였다.

◇ 부작용 잇따라=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200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의 세 딸에게 로또 당첨번호를 맞추라며 폭행을 일삼던 ‘돈에 눈 먼’ 아버지가 구속됐다. 3월에는 사실상 관계없던 부부가 19억원의 당첨금 분배 문제로 법정에서 서기도 했다. 수배 도중 로또에 당첨돼 호화생활을 해 오던 20대 강도 피의자가 경남 마산에서 불합한 일도 있었다.

◇ ‘당첨비법’ 연구도 가지가지=이전 당첨수자를 이용한 ‘회귀법’, 45개 숫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3분법 패턴’, 확률공식을 활용한 ‘포아송(삼각수) 공식’, 로또추첨 방식이 끝난 뒤 당첨번호를 보여줄 때 할로겐튠에 남은 공에 주목하는 ‘할로겐튠’이 대표적 기법.

특별 운세나 꿈 해몽을 통해 45개 숫자 중 당첨될 6개의 숫자를 점쳐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당첨비법을 담았다는 책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대 입양 사실 알고 비판 자살

지난 23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A유족주점에서 종업원 이모(24·광주시 서구 광천동)씨가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살 때 조모(여·54·임실군)씨 가장에 입양됐으나, 5년 전인 고교 3학년 때 이 같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수시로 가출하는 등 방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7월 입양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괴로워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잇단 영장 기각... 당황하는 檢·警

광주지법, 최근 일주일 42% ‘평소의 2배’

“수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멘소리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일선 수사 검사와 경찰들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신중’ 발언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검·경과 법원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검과 일선 경찰서 등에 따

르면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수사 검사와 경찰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불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의 경우 지난 18일 빈창고에 사행성 PC방을 개설해놓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박 개장)로 PC방 업주 이모(40·

광주시 북구 각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업주 이씨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빈 창고에 PC방을 개설한다며 비밀통로를 제작하고 출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신청했고, 예전 같으면 당연히 구속사형이었다”고 말했다. 사행성 성인 PC방의 경우 영업장부와 계좌추적 등 수사기간이 길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또 지난 20일 공장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간부 박모(37)씨 등 3명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신철 학교 납품 비리에 연루된 광주 W중 교장 김모(55)씨의 영장과 지난 14일 대하도서관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27)씨에 대한 영장도 각각 기각됐다. 모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거나 뇌물 액수가 적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한 경찰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잦을 경우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일선에서 뛰는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인권 보호가 우선돼야 하지만, 발부 사유가 충분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각되는 사례가 적잖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처럼 영장 기각이 잇따르자 검찰은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속 사유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법원 측은 그러나 “구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최대한 걸러주는 필터(Filter)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원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화한다 해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일주일(9월14일~20일) 동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77건 중 41.5%인 32건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이는 이전 일주일간(9월7일~13일)의 기각률 21.0%(76건 중 1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외국인의 날’ 24일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열린 ‘제 12회 광주 외국인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들이 각국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800여 명의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참석해 한국어로 말하기 대회,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장기자랑 등을 즐겼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성매매 특별법 시행 2년

### 광주·전남 집창촌 불 꺼지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불야성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의 ‘집창촌’의 불은 꺼졌지만, 신·변종 성매매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창촌 줄고 신종 업소 늘어=2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23일 특별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40개소에서 17개소로 42.5%가 줄었으며, 성매매 종사자도 74명에서 43명으로 58.1%가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스포츠마사지·휴

게텔·출장마사지 등 신종 성매매 업소는 137명에서 198명으로 오히려 22.9%가 더 늘어났다. 이는 기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감시는 강화됐지만, 안마 업소 등 신종 성매매 업소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성 구매자 절반이 기혼남성=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피의자는 모두 721명. 이 가운데 52.3%인 451명이 기혼남성이었으며, 20대 이하는 270명(31.3%)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353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인 323명(37.5%)으로, 경제적 능력과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935) 김철두



연예2차동원침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명 353부지  
문의 (062)366-4220

“180년 명품 시계” 알고보니 5년



○서울경찰청 외 사과는 24일 이탈리아의 신생 브랜드 ‘지오 모나코’(GIO MONACO) 손목시계를 수입, 제값의 4~5배를 받고 팔아 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39)씨 등 2명을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11월부터 ‘지오 모나코’에서 손목시계 770여 개를 수입한 뒤 백화점·홈쇼핑을 통해 개당 299만~655만원을 받고 572개(20여여인 상당)를 팔아 8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이씨 등은 수입단가 77만원짜리 ‘안젤로’ 모델을 299만원에, 수입가 136만원짜리 ‘디바다이아몬드’는 655만원에 팔아 개당 130만~34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이들은 2001년 처음 출시된 이 제품을 ‘1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명품 시계로 선택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시계’라고 허위 광고하고,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에게 협찬해주는 수법으로 명품 이미지를 쌓아 왔다고 경찰은 설명. /연합뉴스

다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지역사랑예금**  
판매금액의 0.1%를  
농협이 지역발전용 재해 사용합니다.  
반의 손집기  
주관: (재)농기주부모임·농협